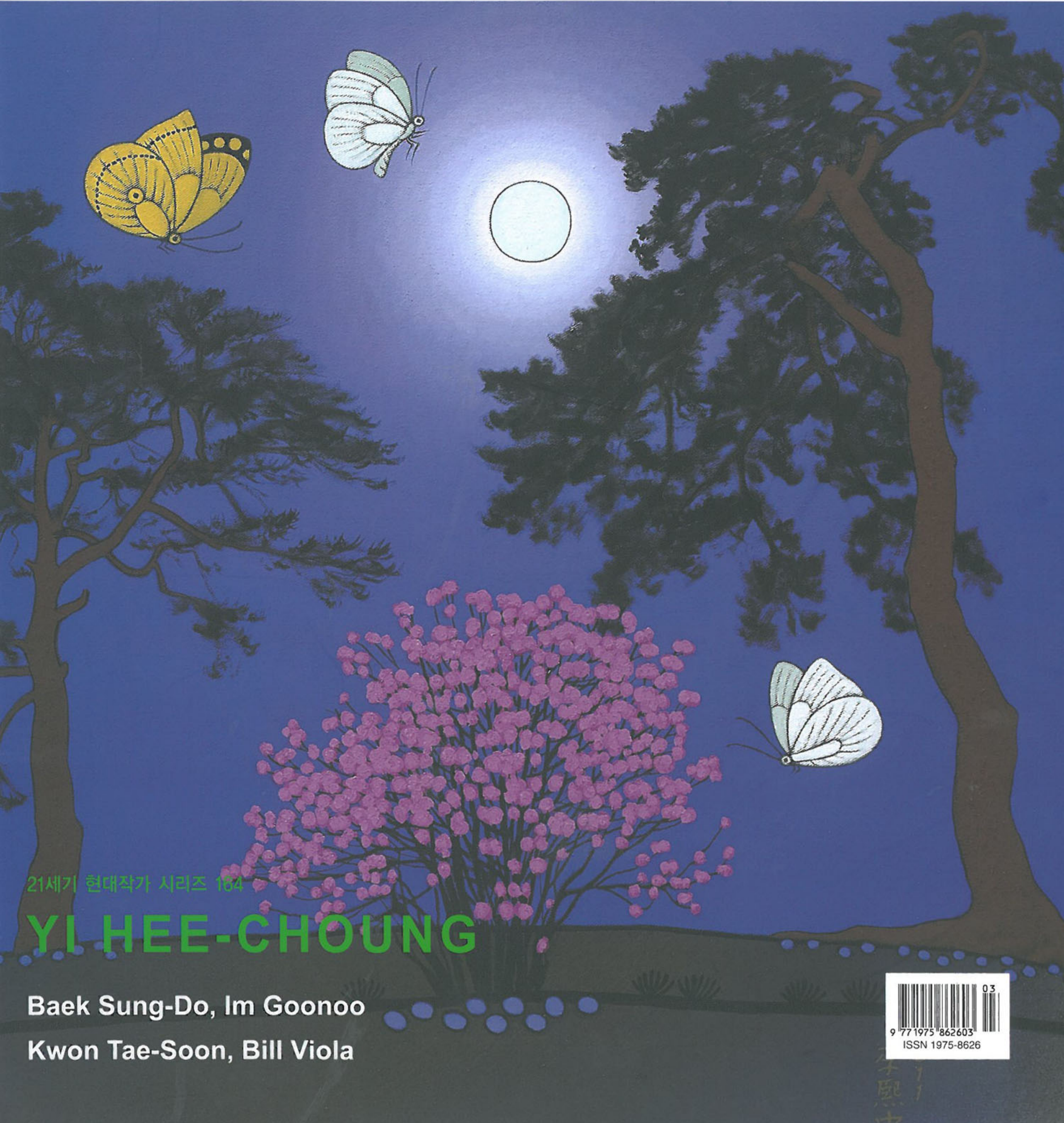


# 미술시대

MISOOLSIDAE

3/4

2015  
THE ART MAGAZINE  
MISOOLSIDA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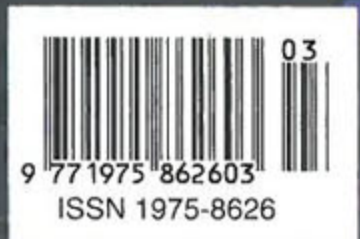


21세기 현대작가 시리즈 184

## YI HEE-CHOUNG

Baek Sung-Do, Im Goonoo

Kwon Tae-Soon, Bill Viola





## 박찬경전

2015. 1. 4 - 3. 21 이니바 국제 현대미술 기관

전시 제목인 <파경>은 굿판의 마지막 순서를 일컫는 말이다. 굿을 마무리하기 전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 의식은 이름 없는 영혼, 위로 받지 못한 잡귀를 모두 불러모아 위로하고 먹여 보내는 의례를 뜻한다. 주요 참여작품으로는 이번 전시를 위한 신작 <작은 미술사 #1>(2015)와 대표작 <신도안>(2007)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. (문의: 02-735-8449)



▲ 만신 · 스틸컷 · 2014

▼ 파경 · 런던 Iniva 설치전경 · 2014

전시 제목인 <파경>은 굿판의 마지막 순서를 일컫는 말이다. 굿을 마무리하기 전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 의식은 이름 없는 영혼, 위로 받지 못한 잡귀를 모두 불러모아 위로하고 먹여 보내는 의례를 뜻

한다. 주요 참여작품으로는 이번 전시를 위한 신작 <작은 미술사 #1>(2015)와 대표작 <신도안>(2007)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. 이전 에르메스 미술상 전시를 통해 처음 선보인 <신도안>은 정치적 문제에 천착해 온 작가가 전통과 종교, 공동체로 시야를 넓힌 대표작이며, 관련 작품으로는 <파워통로>(2004)가 있다. 그 밖에 <신도안>과 이어진 사진 작업 <세 개의 묘지>(2009)와 영화 <만신>(2014)의 참고자료를 함께 전시해 작가가 펼쳐온 사고의 궤적과 창작 여정을 공개한다.

이번 전시를 위한 신작 <작은 미술사 #1>(2015)는 시간과 장소, 미술의 안팎을 넘나드는 예술의 연대기이다. 작가가 선택한 19개의 예술 작품 이미지를 개인적 서사로 구성한 이 작업은 '뿌리 없는 것'과 '이름 없는 것'에 관한 관심을 통해 미술사를 재구성한다.

특별하게도 이번 전시는 작업의 결과를 보여주는 일반적 전시 형태를 벗어나 작업의 과정과 지식의 관계를 짚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. 관람객은 작업의 외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과 그 이면의 작가의 사적인 생각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. 그 예로 영화<만신>의 경우 제작 과정에서 조사, 참고된 1980년대 실제 굿을 기록된 자료와 함께 선보이며, 작가의 글, 영감을 받은 다른 작가의 작업 및 기타 학술 자료 등이 함께 전시된다. 그 외에도 이전 박찬경이 참여한 "포럼 a"(1998~2005), "저널 불", "<미디어시티서울 2014> 귀신 간첩 할머니

니"와 관련한 여러 텍스트 작업을 함께 전시하며, 비평가, 활동가로서 작가가 펼쳐온 활동의 궤적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소개 예정이다.